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처녀비행 성공

KT-1에 이은 2번째 독자 모델로 2015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발판 마련

국내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지난 8월 20일 처녀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전문화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 : 길형보)는 국내에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가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실시한 최초의 성능 시험비행에서 활주로 주행, 이륙, 비행, 착륙에 이르는 비행성능 평가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행에서는 항공기의 기본성능, 조작성, 기본 시스템의 작동, 비행시험기구 및 원격자료 송수신 등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개발된 초음속 항공기가 국가 영공을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48년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원조받은 10대의 L-4 연락기의 정비사업에서 시작한 우리 나라 항공산업의 발전 역사상 50여년만에 이룬 쾌거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체 개발한 고유 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해 이번 시험비행의 성공은 우리 나라가 항공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이 날 T-50 고등훈련기의 시험비행을 수행한 공군 T-50 시험비행 조종사 조광재 중령(공사 33기)은 비행성능 테스트 후 "T-50은 디지털 비행제어(FBW, Fly-By-Wire) 시스템 장착으로 우수한 공중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예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여 비행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조종할 후배 조종사들에게 가장 적절한

고등훈련기로 판단된다"며 국산 초음속 항공기의 우수성에 감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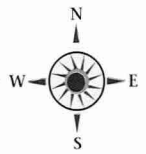
이번 시험비행은 지난 '97년 10월부터 공군의 사업관리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국내외 협력업체와 더불어 항공기의 기본 및 상세설계,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전방·중앙·후방동체 등의 부품품 제작과 최종조립 등 신기종 항공기 개발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다.

T-50 고등훈련기는 향후 주기적인 지상시험과 공군 조종사의 시험 비행 과정을 반복해 2003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번 T-50 고등훈련기의 비행은 초음속 항공기의 국내개발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항공 무기체계 운용기반 구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T-50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착륙한 조광재 중령





우리 기술로 만든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로 비행훈련을 받게 되는 우리 조종사들의 자부심과 긍지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50 고등훈련기의 개발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현재 공군에서 사용 중인 KT-1 기본훈련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업체이다.

1999년 10월 대기업 빅딜로 출범한 이 회사는 KT-1 기본훈련기의 해외 수출에 이어 초음속 항공기의 개발을 이끌어 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통해 올 상반기 1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올해 3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어 빅딜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대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고등훈련기 기종인 T-50 고등훈련기는 이미 노후화된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최소 800대, 시장 점유율 25%, 총 300억달러 상당의 해외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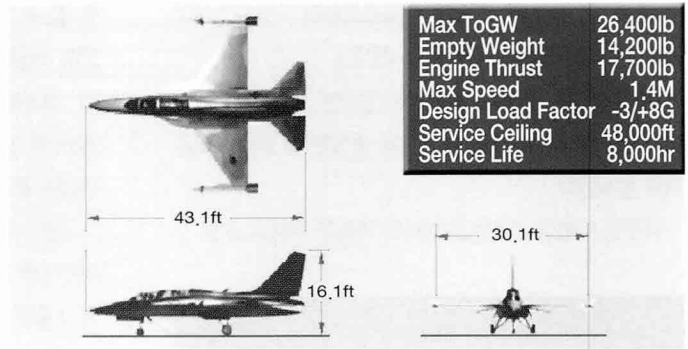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록히드마틴사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30년까지 25년간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급 항공기의 세계시장 수요는 약 51개국 3,3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는 이번 T-50 사업을 통해 21세기 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KT-1 기본훈련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 계약함으로써 국산항공기 수출시대를 개막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이번 T-50 고등훈련기의 비행 성공이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공군의 비전과 '세계 10대 항공기 수출국 입성'이라는 국가 항공산업의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91년 항공기 개발이 결정된 후 '97년부터 공군의 사업관리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공동 개발해 온 초음속 항공기로, F-16, F-15, 라팔, F-22, JSF 등 전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해 설계된 고등훈

T-50의 제원 및 성능

구 분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제 원	전 장	43.1ft(13.14m)
	전 폭	30.1ft(9.17m)
	전 고	16.1ft(4.91m)
성 능	엔 진 추 력	17,700lb
	최대이륙중량	26,400lb(12,000kg)
	자 체 중 량	14,200lb(6,455kg)
	최 대 속 도	마하 1.4
	설 계 하 중	-3/+8G
	상 승 고 도	48,000ft(14,630m)



련기 겸 경공격기이다.

T-50 고등훈련기는 80년대부터 제기된 T-38, TF-5B 등 노후 훈련기 대체기종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이 진행된 항공기로 고도의 기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신뢰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첨단 디지털 엔진제어 방식의 F404-GE-102 엔진, 전투기보다 높은 구조하중 기준을 적용한 견고한 기체구조 및 착륙장치 등을 적용해 동급의 유사 훈련기 중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의 별칭은 Golden Eagle이다. Golden Eagle은 독수리와 조류 중에서 유일하게 사냥을 통해 살아 있는 먹이를 잡는 맹금류로 황금색 목 털을 지니고 있어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Golden Eagle의 날쌔고 용맹한 이미지가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T-50에 적합하여 항공기의 별칭으로 붙여졌다.

한화, 227밀리 대구경 다연장 로켓탄 사업자로 선정

포병 화력 증강과 함께 국내 생산에 따른 외화 절감도 기대

한화는 국방부 조달본부와 지난 7월 30일 총 1조원 사업규모가 예상되는 227밀리 대구경 다연장 로켓탄(MLRs)사업의 1단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계약규모는 약 2,000억원이며, 향후 2013년까지 매년 일정물량을 계약, 납품할 예정이다.

대구경 다연장 로켓탄(MLRs :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은 한화가 미국으로부터 기술도입하여 2004년부터 국내에서 양산하는 것이다.

이 로켓탄은 미국으로부터 직수입하는 사거리 300km 미사일인 ATACMS Block 1 A와 동일한 발사대를 이용하여 발사한다.

대구경 다연장 로켓탄은 미국이 개발한 지대지 로켓 사

격체계로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춘 탄약으로 우리 군은 1999년에 미국으로부터 발사차량과 기본휴대탄약을 직도입하여 야전에 실전 배치운영하여 왔으나 금번에 한화가 전투비축탄을 전량, 국내에서 자체생산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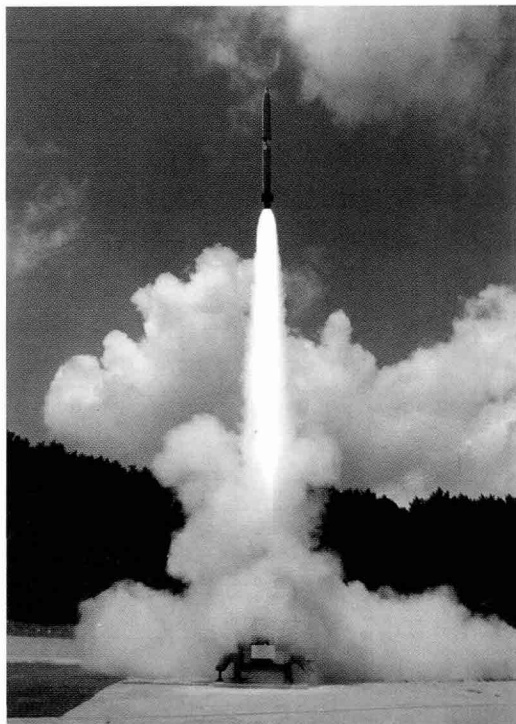
이 로켓탄은 6발이 1개의 포드 컨테이너에 장입된 것으로서 6발 연속발사시 축구장 3~4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의 집중력이 뛰어나며, 걸프전 당시 미군이 운용하여 이라크에 심대한 타격을 끼쳤던 바, 이라크 군이 하늘에서 철비가 내린다 하여 "Steel Rain"이라 부를 정도로 대 화력전에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금번 계약건은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비축탄 확보에 대한 1차 계약분이며 향후 8~9년 동안 총 약 1조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국방부가 추진해 온 MLRS 2차 사업의 일환으로 한화가 미국의 록히드마틴社로부터 로켓탄 생산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에서 기술도입 생산하는 것으로 '97년부터 한화가 주 계약업체로 미국 록히드마틴社와 기술도입협상을 추진하여 왔다.

금번 한화가 자체생산하는 다연장 로켓탄은 통일이후에도 동북아 주변국 경계 및 힘의 균형을 고려한 핵심무기체계로 계속 활용될 수 있고, 후속으로 사거리, 정밀도 및 위력 등이 향상된 유도무기체계로의 성능개량사업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미사일 및 정밀 유도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동사업은 더 큰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인수한 대우전자 방산사업부문(구 미공장)의 정밀탄약 및 미사일용 전자신관, 해상감시용 첨단기술인 소나(SONAR) 시스템 기술 등을 기존 방위산업 부문과 접목함으로써 관련 방위산업부문과의 대폭적인 시



너지 효과발생은 물론이고, 첨단 정밀 유도무기의 연구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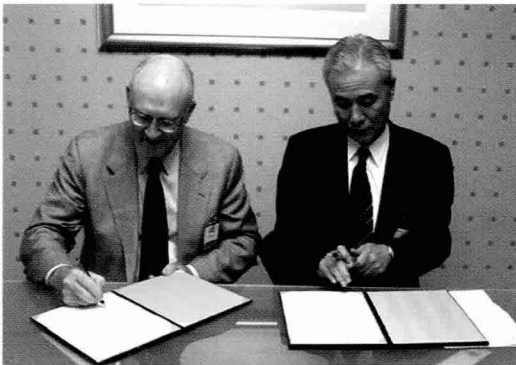
또한 삼성테크윈 등 국내 방산장비업체와 공동으로 신형 곡사포탄약의 대규모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항공기 부품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KFP, H-X,

KT-1, T-50 등 국내의 모든 항공기 개발사업 참여 경험 및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차기전투기(FX)사업의 기종이 미국 보잉의 F-15K로 확정됨에 따라 한화가 공급예정인 비행조절면 작동기 등의 항공기 부품공급과 관련 기술이전에 따른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KAI, F-15K 날개 및 동체 9천만달러 수출계약

총 10억 달러 규모의 FX사업 절충교역 물량



한국 항공우주산업(주)는 지난 7월 25일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 행사장에서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美 보잉사(Boeing)**와 9천만달러 규모의 F-15K 전투기 날개 및 동체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지난 4월 선정된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인 F-15K 전투기에 장착할 날개(Wing) 및 전방동체(Forward Fuselage)를 보잉사에 공급하게 되고, 보잉사는 최종 조립된 F-15K 전투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차기 전투기 사업(FX)의 사업자 선정시 보잉사가 제시한 절충교역(Offset)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기종 선정 이후 3개월 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보잉사간의 구체적 실무협상을 거쳐 체결된 것이다.

또한 이 회사는 이번 계약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보잉

사가 제3국에 F-15를 추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주익과 전방동체를 독점 공급하기로 해 수출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보잉사는 현재 싱가포르와 호주가 실시하는 차기 전투기 선정사업에 후보 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F-15K 전투기 뿐 아니라 B-747 등 보잉사가 생산하는 민항기 기종의 주요 기체 구조물을 보잉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등 이번 FX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해 총 10억달러에 달하는 사업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신기종 항공기의 개발, 항공기의 정비/개조 사업 등 보잉사가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추진하는 민간항공기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재 매출의 20% 선에 머물고 있는 민수부분 물량을 3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 항공기 부문 전문화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국내 항공산업의 최대 과제인 장기 생산물량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세계 3대 에어쇼의 하나인 영국 판보로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2002)에 참가하고 돌아 온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이 기간 중 국산 항공기(KT-1, T-50)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스라엘, 베네주엘라, 방글라데시 등 중동 및 중남미, 동남아 국가의 군수 책임자를 대상으로 방산물자 수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